

2023. 4. 21.(금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4월 21일 오전 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

농수산유통담당관

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

농수산유통담당관	정 덕 영	2133-4450
도매시장관리팀장	천 소 영	2133-4463
주무관	이 후 락	2133-4464
환경조성본부장	권 기 태	3435-0580
식품안전팀장	박 경 선	3435-0310
담당자	이 은 정	3435-0313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: 3쪽

### 서울시, 도매시장 유통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강화

- 가락·강서시장 등 유통 수입 수산물 3중 검사시스템 도입, 검사 사각지대 최소화
-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 활용 간이검사, 지난해 월 420건에서 올해 840건 2배 ↑
- 수입 수산물은 시료 채취 후 정밀기기 검사 병행, 의심 품목은 시 보건환경연구원 추가검사
- 찾아가는 방사능검사소 월 1회 운영, 시민참여 농수산유통안전지킴이 가동

- 서울시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시민들의 밥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서울시민 먹거리의 50% 이상을 유통하고 있는 가락시장(송파구 가락동)과 강서시장(강서구 외발산동)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21일(금) 밝혔다.
- 특히 수입 수산물에 대해선 간이→집중→정밀검사로 이뤄지는 3중 검사시스템을 도입,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.

<휴대용 방사능 계측기 활용 간이검사, 지난해 월 420건에서 올해 840건 2배 ↑>

- 시민 안심을 위한 1단계는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해 지난해 월 420건씩 실시했던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 간이검사를 올해 4월부터는 월 840건으로 2배 늘려 시행하고 있다.
- 간이검사는 농수산물 표면을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로 측정, 공간 오염도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다.

<수입 수산물은 시료 채취 후 정밀기기 검사 병행, 의심 품목은 시보건환경연구원 추가검사>

- 여기에 4월 말부터는 농수산물 시료의 알파( $\alpha$ )·베타( $\beta$ )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검사기기를 도입해 돔, 명태, 가리비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집중검사를 병행한다.
- 이 검사기기는 기존의 식약처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감마선 핵종성분과 함께 방사선의 다른 종류인 알파선과 베타선량을 측정하여 방사능 검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장점이 있다.
- 의심 품목에 대해선 시(市)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요오드·세슘 감마핵종 성분 등에 대한 정밀검사도 진행해 방사능 오염여부를 확실하게 분별한다.
- 두 개 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매주 1회 업데이트되며 서울시식품안전정보 ([fsi.seoul.go.kr](http://fsi.seoul.go.kr))와 서울시농수산물공사 ([www.garak.co.kr](http://www.garak.co.kr))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<찾아가는 방사능검사소 월 1회 운영, 시민참여 농수산물유통안전지킴이 가동>

- 아울러 시는 오는 5월부터 매월 1회 가락시장(가락물)에서 직접 ‘찾아가는 방사능 검사소’도 운영 예정이라고 덧붙였다. 소비자 또는 상인들이 요청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현장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확인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.
  
- 이 외에도 서울시민이 직접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전반에 참여하는 ‘농수산물유통 안전지킴이’ 제도도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.
  
- 농수산물 유통 안전에 관심높은 시민 25명으로 구성될 안전지킴이는 검사용 시료 채취, 방사능 검사 참관, 미생물 검사를 비롯해 부적합 농산물 폐기,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까지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다양한 역할을 한다.
  - 농수산물유통 안전지킴이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농수산물식품공사누리집 ([www.garak.co.kr](http://www.garak.co.kr))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후 4월 27일(목)까지 신청하면 된다. 활동 기간은 5월~10월까지다.
  
- 한편,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는 '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‘공인 안전성 검사기관’으로 지정받았으며 현재 도매시장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, 중금속, 방사능, 미생물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.
  - 지난해 총 3만 4,141건의 안전성검사를 실시했고, 부적합으로 판정된 87건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했다. 올해도 3만 6,000여 건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.

- 정덕영 서울시 농수산유통담당관은 “잔류농약과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많은 농산물과 수입 수산물에 대한 집중적이고 꼼꼼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의 밥상 먹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불안은 해소하겠다”고 말했다.